

건강 칼럼

국민건강에 빨간불, 3대 만성질환 환자 1400만명 시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료 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혼란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당장 문제를 이리저리 메워가며 해결하고자 하지만, 의대 교육과 의사 양성 체계는 엉망이 된 상태에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안을 위한 의료 현실만 남아 있다.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으며, 원인 제공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는 듯하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마치 손을 놓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자 현재 수준이다. 어쩔 수 없다.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한 결과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9년 654만 3천여 명에서 2023년 747만 4천여 명으로 5년간 93만 명(14.2%)이



이 윤 희
파시코 대표이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인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22만 8천여 명에서 383만 7천여 명으로 60만여 명(18.5%)이 증가했다.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21만 5천여 명에서 304만 5천여 명으로 83만여 명(37.4%)이 늘었다.

이를 합치면 총 환자 수는 1,434만여 명에 달하며, 5년 사이에 230만 명(19.6%)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 국민의 27.5%, 즉 세 명 중 한 명이 3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밀집된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건전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자리잡은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직장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현재 국민 건강검진 과정에서 웬만한 질환은 70~80%가 발견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81~82세로 나타나지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66~67세에 그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인생의 말년 15~16년 동안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곳곳에서 '건강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생활 현장에서 노력하고 실천하자"는 구호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대 만성질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필요량보다 많은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즉, 움직이지 않는) 결과로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고 모두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결국 각자의 몫이다.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만이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설

오수개 국제기구 품종

전북 임실군이 반려 관광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의견'의 상징인 임실 오수개가 품종 복원 30여 년 만에 국제기구 UN의 공식 품종으로 등재됐다. 이를 계기로 임실군이 반려 산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천 년 전 불이 난 줄 모르고 잠든 주인을 품을 바쳐 구했다는 설화 속 주인공이 바로 오수개이다.

품종 복원이 이뤄진 오수개는 연한 누런색 몸에 온순하고, 친화적인 성격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오수개는 밖에 나오면 아이들이 만져도 아무렇지 않다. 주인하고는 아주 정감이 있고 잘 따른다. 오수개가 올해 국내 품종 인증에 이어 UN 산하 국제기구인 FAO, 식량농업기구에 국가 고유 품종으로 등재된 것이다.

진돗개와 삼살개 등에 이은 우리나라 네 번째 공식 품종 인증이다. 임실군과 오수개연

구소가 30여년 만에 육종 복원 사업의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의견비 자체를 국가유형문화재로 등재를 시켜야 된다.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로 등재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임실군은 이번 품종 인증을 계기로 오는 2026년까지 오수면에 반려동물 캠퍼장과 전시관, 캠프 이션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반려동물 가족 100만 시대를 맞아 전국 최초로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유치한 임실의 종견 고장 이미지를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2080년에는 세계반려동물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지역 관광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반려인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세계 명견 테마 랜드와 애견 호텔 등을 조성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천년의 부활을 알린 오수개가 철제된 임실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어느 목자의 성폭행 혐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어느 종교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여신도였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

거 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교 영상을 틀어 보이며 평상시 신도들에게 재림주, 메시아, 주님 등으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공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문화 확산의 첫걸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안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심폐소생술(CPR) 교육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1분당 생존율이 약 7~10%씩 감소하므로, 초기 4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결정적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과 뇌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도와주며, 병원 전 단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은 단순한 응급처치 기술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원소방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안전문화 확산의 첫걸음이라



나 현 철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안전팀장

는 인식 아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령, 직업, 상황에 맞춘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교육하여 응급처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전은 현실이 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안전문화 확산의 첫걸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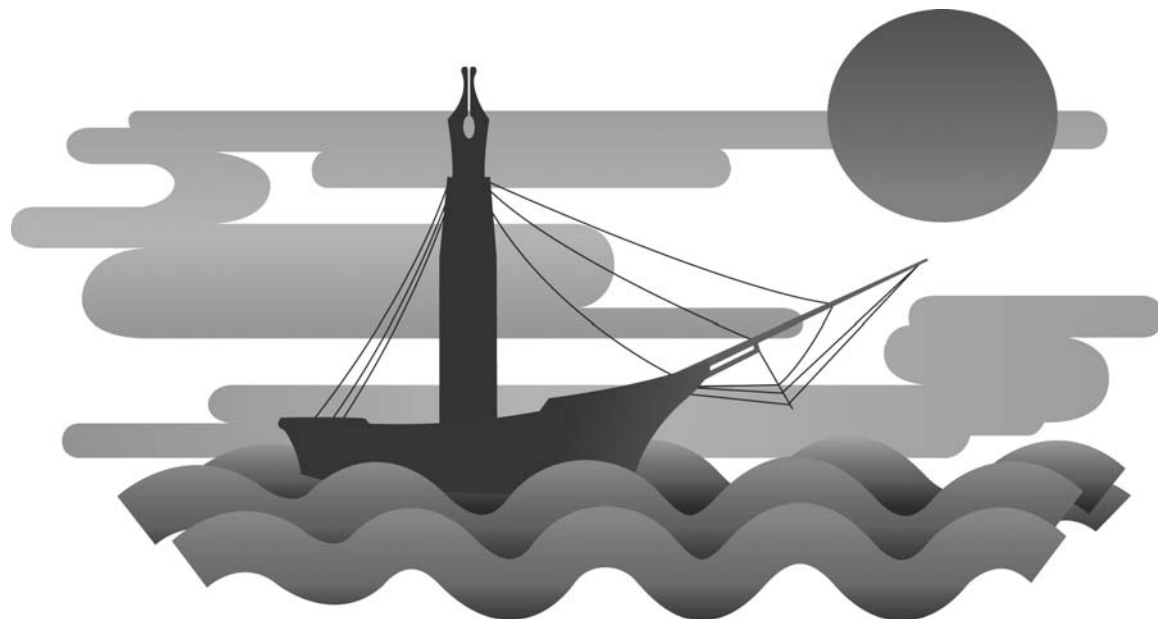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